현대소설연구(제76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oi.org/10.20483/JKFR.2019.12.76.031

김정한 소설의 공간정치

–'까막소'에서 '미륵당'까지

문 재 원*

요약

본 논문에서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까막소(감옥)'가 김정한의 소설에서 핵심적인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매개한 공간정치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저항'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고찰했다. 나아가 까막소를 전면화하면서, 한편으로 까막소를 벗어나는 바깥에 대한 상상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잠재성을 타진하고자 했다.

공간 까막소는 요산 소설 안에서 서사를 파국으로 이끌며 종결시키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서사의 출발점이 되는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때 새로운 출발점은 감옥의 통치, 지배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는 지점이며, 새로운 공간-주체의 탄생이 예고되는 자리이다. 일제 강점기나 근대화시기 농민, 민중들의 서사는 까막소와 매개되면서 파국으로 종결되었다. 이때 까막소는 이들에게 공포의 공간으로 작동하면서 없는 죄도 고백하게 만들며 동일성의 세계를 구축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반면, 일제 강점기나 해방 이후 지식인들의 서사는 까막소와 매개되면서 오히려 저항적 주체로 탄생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처럼 수난과 저항의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는 '까막소'의 전면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탈(脫)까막소에 대한 상상일 것이다. 요산 소설 안에서 까막소 안으로 회수할 수 없는(되지 못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탈감옥의 상상력을 탐문했다. 특히 『수라도』의 취약한 자들이 모여 소란스러운 미륵당의 공간성을 지배공간의 질서와는 다른 공간적 실천으로 주목하였다.

주제어: 김정한, 까막소(감옥), 미륵당, 토포포비아, 정치적 주체, 저항, 공간적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교수

실천

목차

1. 들어가며: 글쓰기의 출발점으로서의 ‘까막소’
2. 토포포비아의 감옥, 추방의 서사
3. 감옥의 부당 전유, 정치적 주체의 탄생과 저항 공간
4. 탈감옥의 공간적 상상력, 취약한 자들의 마당- 미륵당
5. 나가며

1. 들어가며: 글쓰기 출발점으로서의 ‘까막소’

요산 김정한 소설 안에서 ‘까막소’[1)]라는 공간은 해방 전후를 막론하고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사하촌」의 고서방이 끌려갔던 ‘주재소’는 문단 복귀의 신호탄인 「모래톱이야기」의 갈밭새 영감의 ‘감방’으로 이어지고, 이후 국가의 ‘근대화’ 정책에 항의하는 노인들을 경유하는 공간으로 등장한다.(「독메」, 「실조」, 「어떤 유서」). 뿐만 아니라 법의 테두리에 조차 들 수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장소로 등장한다.(「인간단지」, 「산거족」) 특히 그의 자전적인 소설(「어둠 속에서」, 「과정」, 「위치」)은 유치장 생활을 기록하면서 ‘수감번호 1147’이 적시되고, 감금의 고통을 담고 있다. 이처럼 서사적 배치(agencement)의 차이는 있지만, 그의 소설에서 식민통치의 상징적 공간 ‘까막소’는 처음과 마지막을 아우르면서 거의 전편에 등장하고 있다.

소설 안에서 까막소는 일제 식민지뿐 아니라 해방 직후, 한국전쟁, 근

1) 김정한, 「낙동강의 넋두리」, 『낙동강의 파수꾼』, 한길사, 1985, 86면; 본 논문에서 까막소는 소설 안에서 주재소, 경찰서, 파출소, 고등계, 구룻간, 감방 등을 아우르는 감옥-장치의 확장된 개념으로 설정한다. 분명 정도와 기능의 차이는 있지만, 이 공간들이 요산의 소설에서 식민지 통치와 근대국민국가의 강력한 법질서가 작동하는 체제공간이라는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화, 유신 등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서사에서 여전히 다수의 '고서방들'(「사하촌」)의 '억울한' 사연들을 가두는 공간으로 등장하고 있다. 작가가 작품 안에서 이토록 집요하게 동일한 공간을 생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숫제 법을 모르는' 식민지 농민(「그물」)이나, 식민지 통치법을 너무도 잘 아는 식민지 지식인(「위치」)에 이르기까지 식민지 기억의 저장소 - 까막소-가 해방 이후 '조국 근대화'의 국가적 사명을 서사화하는 플롯 안에도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한 반복이 아니라, 작가의 주요한 서사적 전략장치로 볼 수 있다.

한편, 문학 작품 안에서 끊임없이 환기되었던 까막소는 주지하듯이, 작가의 개인사적 경험에서도 빼놓을 수 없다. "'순사 온대이!" 하면 울던 울음도 그쳐야 되는 환경'[2] 속에서 소년 시절을 보낸' 작가에게 순사, 주재소, 감옥 등 감옥체계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원초적 공포로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 두 살 때 나라가 망해버린 나는 철들기 시작하자 제일 무섭고 또 얄미운 것이 순경이었다. 일본 순경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사람인 경우도 말만은 우리말을 썼을 따름이지 결국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툭하면 어른들과 청년들을 잡아가서 반주검을 만들어 보내거나 아니면 구류간에 가두고 했기 때문이다.[3]

요산은 반일, 반독재로 이어진 '반골벽'[4] 때문에 "옥에 갇히고 하는 불리한 결과를 뼈에 사무치게 알고 있노라" 술회한 바 있다. 그는 '중학교(동래고보) 마치기 전에 스트라이크 관계로 경찰 출입을 하게' 된 것을 시작으로 '대현공립보통학교로 교사로 부임한 뒤 경찰로부터 가택수색을 당

2) 김정한, 「인간적 양심이 요구하는 문학」, 『사람답게 살아가라』, 동보서적, 1985, 250면.
3) 김정한, 「남 못주는 버릇」, 위의 책, 270면.
4) 김정한, 「반골인생」, 『낙동강의 파수꾼』, 한길사, 1985, 37면.

하고, 동래경찰서로 이송되어 문초를 받았다.'[5] 이후 '불령선인'의 낙인을 달고 '요시찰 인물'이 되었다. 양산 농민의거 사건에 관련이 되어 경찰에 피검됨으로써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이것이 '일생의 운명을 결정지은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 이후 동아일보 동래지국을 하면서 치안유지법 위반의 명목으로 경찰신세를 지기도 했다.[6] 해방이 된 이후 없을 줄 알았던 '경찰신세'는 계속 이어졌다.[7] '반일해방운동자 구원회, 백범 선생이 주장하던 남조선 단독선거 반대 등에 관련되어 몇 차례 투옥'되었고, 한국전쟁, 5.16 군사쿠데타 때 마다 그는 예비검속으로, 사상불온으로 피검되고, 교수직도 두 번이나 파면되었다. 이처럼 한평생 도피와 구금의 시간이 반복된[8] 그의 인생에서 까막소는 작가 김정한뿐 아니라, 인간 김정한에게 벗어날 수 없는 공간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험들은 '체험의 서사화'[9]가 창작방법이자, 세계관으로 작용했던 요산의 소설 안에서 건너뛸 수 없는 주요한 서사적 공간으로 배치되었다. 그는 소설 안에서 감옥을 일차적으로 "일제 치하 36년, 여러 차례의 독재정권 밑에서 민족과 민중이 겪은 수모와 수난"[10]의 공간으로 감옥을 배치하면서, 한편으로는 "불의에 대한 항변과 증언"[11]의 장소로 포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요산의 문학은 '민족 수난의 서사이자 저항의

5) 김정한, 「허덕이다 보낸 인생」, 『사람답게 살아라』, 동보서적, 1985, 267면.
6) 김정한, 위의 글.
7) 이에 대해 요산은 이렇게 술회하기도 했다. "나를 불령선인이라 해서 늘 감시를 해오던 일제가 이 땅에서 물러갈 때 틀림없이 내게 어떤 딱지를 붙여서 사무 인계를 했는가 보다."(「이윽고 나와 함께 다 늙은 아내에게」, 『낙동강파수꾼』, 한길사, 1985, 223면)
8) 조갑상, 「시대의 질곡과 한 인간의 명징함」, 강진호 편, 『김정한』, 새미, 2002, 23면.
9) 가령, 요산의 회고에 다음과 같은 대목들이 반복된다. "내가 나이 들어 경찰에 붙들려가고 심한 고문을 당할 때마다 나는 왜놈들과 그들의 앞잡이들에게 뺨을 얻어맞던 그 시골 사람들-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일을 기억에 떠올리면서 고통을 견디었다. 내가 농민들을 소재로 하는 소설을 즐겨 쓰게 된 것도 모두 이 유년시절에 겪은 일들이 내 머리 속에 깊이 못박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김정한, 「반골인생」, 『낙동강의 파수꾼』, 한길사, 1985, 35면)
10) 김정한, 「청년 작가 제군에게」, 『사람답게 살아라』, 동보서적, 1985, 244면.
11) 김정한, 「인간적 양심이 요구하는 문학」, 위의 책, 250면.

기록으로 귀납'[12]되고, 그를 민중문학, 민족문학 작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이견이 거의 없다.[13] 이러한 틀을 전제할 때, 수난과 저항의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는 '까막소'는 작가에게 떨쳐버릴 수 없는 문학의 출발점이자 '저항의 장소'[14]였다.

그래서 공간 '까막소'는 요산 소설 안에서 서사를 파국으로 이끌며 종결시키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서사의 출발점이 되는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때 새로운 출발점은 감옥의 통치, 지배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는 지점이며, 새로운 공간-주체의 탄생이 예고되는 자리이다. 종결의 플롯이든, 시작의 플롯이든, 까막소와 요산 소설의 '긍정적' 인물들은 한마디로 불화(mésentente)[15]의 관계에 있다.[16] 그러니까 까막소와 불화하는 인물들의 과거-현재를 관통하는 서사는 해방 전후를 관통하는 요산문학의 일관된 주제이다.

'합법화된 국가(제국)권력' 공간인 까막소와 불화하는 국민(신민)의 서사를 통해 작가가 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특히 1966년 문단에

12) 김경연, 「김정한 미발표 장편 자전소설 연구」, 『한국문학논총』 77집, 2017, 298면.

13) 김정한 소설 초기 연구의 경향성으로 '리얼리즘', '저항과 인간해방' 등의 방법론, 세계관 등에 집중화되어 있다.(김병걸, 「김정한 문학의 리얼리즘」, 59-88면; 김종철, 「저항과 인간해방의 리얼리즘-김정한론」, 91-125면; 강진호, 「근대화의 부정성과 본원적 인간」, 132-141면, 강진호 편, 『김정한』, 새미, 2002) 특히 작가의 생애와 연관시켜 저항 작가의 위상에 집중되어 있는 이 지점은 요산 연구의 출발점이면서 넘어서야 할 지점이다. 이후 근대성, 지역성, 페미니즘 등으로 연구의 주제가 확장되고 있는 경향성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서는 최미진, 「김정한 소설의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문학논총』 54집, 2010, 246면) 특히 최근에는 요산문학의 지역성을 확장하여 동아시아적 전망과 연결시켜 시야를 확장하고 있다.(구모룡, 「21세기에 던지는 김정한 문학의 의미」, 『창작과비평』 36-3, 2008; 하상일, 「요산 소설의 지역성과 동아시아적 시각」, 『영주어문』 34, 2016, 284-288면 참조)

14) 김정한, 「남 못주는 버릇」, 『사람답게 살아가라』, 동보서적, 1985, 272면.

15) 자크 랑시에르, 진태원 옮김, 『불화』, 길, 2015, 17-21면.

16) 이에 대한 가치평가는 작품 밖의 요산의 발언태도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심지어 일제 하 우리의 독립투사, 민족 배방 운동자들을 못 살게 괴롭혀 오던 고등계 형사들까지 수사 기술자라 해서 행정 요직에 앉히게 되었으니 민족정기란 말조차 쓰기 어렵게 되지 않았던가?(김정한, 「자신을 지키며 사는 일」, 『사람답게 살아라』, 동보서적, 1985, 23-24면)

복귀한 이후, 작가의 식민지 기억뿐만 아니라, 해방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는 시공간에서도 까막소가 반복적으로 호출되고 있는, 까막소의 연속성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다름 아닌, "그 기막힌 사연들에 차마 묵묵할 도리가 없었다던"(「모래톱이야기」) 작가의 태도에서, 기막힌 사연의 집합소- 까막소를 경유하는 요산의 문학적 출발점을 확인할 수 있다. 까막소를 통해 "발을 뻗고 땅을 치는 아낙네들의 넋두리"[17]를 가두어버린 합법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폭력을 넘어서는 공간적 상상력을 열어 보이고자 하는 데 작가의 문학적 지향점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해방 전후 집요하도록 까막소를 호출한 작가의 문학적 상상력은 영어(囹圄)의 육체에서 벗어나 자유의 육체를 회복하는 데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작가 요산이 공간 '까막소'의 재현을 통해 식민통치에서 유신에 이르는 일망감시(panopticon)의 사회[18]를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처벌과 교정'의 치안이 불시착되는 지점을 포착하여 의미화할 것이다. 이러한 프레임은 르페브르의 공간생산의 세 가지 계기성[19]을 근거로 한다. 그리고 르페브르의 공간생

17) 김정한, 「낙동강의 넋두리」, 위의 책, 34면.

18) 미셸 푸코,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 1994, 295면.

19) 르페브르는 공간 생산의 실천적 양상을 주목하면서, 공간적 실천(spatial practices), 공간의 재현(representations of space), 재현의 공간(space of representations)으로 공간 생산의 세 계기를 제시한다. 우리가 지각하면서 반복하는 일상적 실천인 공간적 실천(spatial practices), 공간을 구획하고 공간의 배치와 질서를 형성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문가적인 지식과 강력한 담론들의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공간의 재현(representations of space),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살아가고 체험하고 조우하는 공간들이 다양한 집단과 인간이라는 신체들에 의해서 특정한 의미를 부여받고 상상되고 사유되는 방식들을 재현의 공간(space of representations)에 위치시키면서 이들이 공간의 생산방식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가를 설명한다. 이때 공간적 재현은 질서화된 영역으로 지배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주체의 영역이다. 반면에 재현적 공간은 이 질서화에 들어가지 못하고/않고 남아 있는 잔재 영역으로 무질서하고 혼돈스럽고 규정하기 힘든 에너지가 흐르는 공간이다. 공간적 재현이 재현적 공간을 지배하는 형태로 드러날 때 이 주체는 사회적 호명에 응답하게 된다. 자신의 몸을 지배적 세력－자본, 국가, 전문가 등－이 통제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이 주체는 지배계급이 생산하는 기성(ready made)주체를 복사한다. 현실적 몸(재현적 공간)과 사회적 합의(공간적 재현)가 갈등

산론이 최종적으로 '제 3의 공간에 대한 기획'[20]을 지향하고 있는 것에 기대어, 등단작에서부터 마지막 작품에 이르는 '감옥체계'를 벗어나는 바깥에 대한 상상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잠재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2. 토포포비아의 감옥, 추방의 서사

요산 소설에서 순사에게 잡혀가는 '고서방(「사하촌」)'들은 주재소와 유착된 지주들의 횡포에 고통 받는 농민들이거나(「산서동 뒷이야기」), 민족신문을 지켜내고자 하는 지역 변방의 지국장(「위치」)이거나 반일의 죄목으로 잡혀 들어간 유생(「수라도」), 조선어교육 철폐 반대를 하는 교사(「어둠 속에서」) 등 식자도 모르는 빈민 농민에서부터 지식인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이다. 특히 일제 강점기 배경의 요산 소설 안에서 안/밖, 주체/타자, 가해/피해, 금기/위반, 지주/소작, 가진 자/못가진 자의 금기/위반의 명백한 이분법적 권력은 제국/식민, 친일/항일의 이원체계와 공모하면서 자연스럽게 '민족서사'[21]를 구성한다. 일제/유력자/순사/주재소/경찰/감옥의 유비적 관계들이 이어질 동안 백성들은 "경찰이라면 만정이 떨어져 나갔"(「산거족」)고, 이러한 지주-경찰의 유착관계는 근대화 개발정책 안에서 한평생 살아 온 땅으로부터 속절없이 추방당하는 농민들의 형상화로까지 이어진다.

먼저, 요산 소설에서 직간접적으로 까막소를 주요한 서사공간으로 배

상태에 돌입했을 때, 기성주체 재생산은 위기에 직면하고 주체에게는 다른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따라서 공간적 실천은 기존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수행할 수도 있고 새로운 주체로 나아가는 능동적이고 긍정적 주체를 수행할 수도 있다. 현실공간과 늘 마주하는 주체는 공간적 실천을 통해 공간적 주체로 작동한다.(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옮김,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86-125면)

20) 앙리 르페브르, 앞의 책, 587면.

21) 최강민, 「요산 김정한 소설에 나타난 타자성」, 『한국문학논총』 50집, 2008, 89-94면 참조.

치하고 있는 작품들을 살펴보면, 까막소를 가게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논(땅)'을 둘러싼 갈등과 이념적 대립으로 구분되는데, 이때 이 갈등을 매개하는 인물은 전자의 경우 농민, 민중들이 배치되어[22] 있고, 후자의 경우는 주로 지식인이 배치되어 있다.

유형	해방 이전(시간적 배경)	해방 이후(시간적 배경)	비고
생존형	「그물」「항진기」「기로」「사하촌」「모래톱이야기」「농촌세시기」「산서동 뒷이야기」「실조」	「평지」「인간단지」「산거족」「어떤 유서」「모래톱이야기」	
이념형	「인간단지」「농촌세시기」「수라도」「어둠 속에서」「산거족」「위치」「옥중회갑」	「과정」「설날」「슬픈 해후」「옥중회갑」	「인간단지」「모래톱이야기」「산거족」「옥중회갑」등은 과거/현재의 시간을 관통하면서, 양상은 다르지만 반복적으로 감옥을 경유하고 있다.
기타	「축생도」「뒷기미나루」		「축생도」에서는 보건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출두하게 되는 수의사를 통해 당대 정치권력의 부패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 「뒷기미나루」는 생존과 무관하지 않으나, 심속득이 구금된 직접적 원인은 성폭력 사건이다.

표 1: 표에 제시된 시간적 배경은 소설 속 사건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2) 생존형에서도 「기로」의 두보, 「모래톱이야기」의 갈밭새 영감, 「산서동 뒷이야기」의 박수봉 영감 등은 식자도 모르는 농민들과는 구별되는 지점이 있다. 특히 갈밭새 영감이나 박수봉 노인은 민중들을 각성시키고, 이끌어나가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이들이 생존의 문제로 감옥에 가게 되는 경우는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그가 속한 공동체 집단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다. 두보는 그가 일하는 공사판의 임금문제로 다투다가 억울한 누명으로 구금되었고, 갈밭새 영감, 박수봉 노인도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앞장서다 구금되었다.

요산의 초기 작품 「그물」, 「사하촌」, 「항진기」등 식민지 농촌을 소설적 공간으로 선택한 작품 안에서 경찰-지주의 유착은 어김없이 등장하고, 이 카르텔 안에서 식민지 농민들은 사지로 내몰리는 서사가 반복적으로 재현된다.[23]

> 쓰러진 놈을 여러 놈들이 밟고 차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뻗어져 누운 놈을 끌고 주재소에까지 가자고 야단이다, 곰보는 그 말이 무서워서, 잘못했다고 빌지 않을 수가 없었다.(「사하촌」 1:41)[24]

가뭄에 말라 타들어가는 '논에 흘러오는 물꼬를 조금 터 놓았다'는 이유로 고서방은 뭇매를 맞는다. "위에 있는 논은 한번 적시지도 못하게 하고 아랫논만 두렁이 넘게 물을 실으려는 것은 너무 심하잖소?"라며 항의했던 고서방의 태도는 "주재소 가자"는 말에 급변한다. 적반하장으로 폭력을 행사한 쪽에서 '주재소 가자'고 윽박지르자, 여태까지 맞섰던 고서방은 온데간데 없고 '그 말이 무서워' 무조건 잘못했다고 빈다. 이처럼 전의를 단번에 꺾어 내리는 공포의 장소로 주재소가 환기되는 것은, 당대 주재소에 대한 표상체계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없는 죄도 고백하게 하고, 없는 잘못을 빌게 만드는 이 근대적 장치는 식민지를 경유하면서 더욱 폭압적인 권력을 행사한다.[25]

푸코는 감옥은 철저한 규율과 징계의 도구이며 완전한 교정시설이 되

23) 논에 물을 대다가 잡혀간 고서방 외에 「사하촌」에는 지주와 주재소의 유착을 암시하는 사건이 있다. 마을 공동 소유의 산에서 삭정이를 주워오던 아이들은 보광사 소유의 산에서 나무도둑질을 했다는 오해를 받고 산지기에게 쫓기게 된다. 그러던 중 한 아이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게 된다. 보광사의 과잉대응으로 사망했는데도 그러한 대응을 반성하기는 커녕 아이들을 도둑으로 몰았고, 순사를 데려와 사건을 마무리한다.

24) 조갑상, 황국명, 이순욱 엮음, 김정한 전집(1-5), 작가마을, 2008을 텍스트로 한다. 이하 권수와 페이지만 표시한다.

25) 오현석은 요산 소설에서 감시와 폭력으로 인한 인간성 말살의 장소로 경찰서나 주재소를 포착하고 있다.(오현석, 『김정한 소설의 공간정치학』, 부산대 박사논문 2017, 118-131면)

기 위해서는 '자유의 순수한 법률적 박탈과도 다르고, 관념학의 시대에 개혁자들이 생각한 표상의 단순한 역학과도 전혀 다른 '존재의 재기호 체계화'를 규정한다고[26] 했다. 일망 감시 시설의 주제가 실현될 수 있는 특권적 장소[27], 감옥은 '감히 드러내 놓고 행사될 수 없는 처벌의 권력이 객관성의 영역- (거기에서는 형벌이 공공연하게 치료법으로 기능할 수 있고, 판결이 지식의 담론 속에 포함될 수 있는) -을 은밀하게 조직하는 장소이다.[28] 그런데 요산 소설 안에서 이러한 감옥은 교정/감화/치료의 '사회안전망' 명분보다 일상을 중단시키고 파괴하는 공포체계로 작동한다. 주재소에서 나온 고서방은 더 이상 성동리에서의 삶이 불가능해진다. 소작도 얻지 못하고, 그의 논에 '차압팻말'이 붙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자, 결국 야반도주를 감행한다.

> 고서방은 드디어 야간도주를 하고 말았다.
> "이렇게 비가 오는데, 그 어린것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을까?"
> 이튿날 아침, 동네 사람들은 애 터지는 말로써 그들의 뒤를 염려했다. 무심한 가을비는 진종일, 고서방이 지어두고 간 벼 이삭과 차압팻말을 휘두들겼다. (「사하촌」 1: 69)

「사하촌」고서방의 파국은 억울하게 살인죄로 '구릇간'에 갇힌 뒤 집안이 '풍비박산'이 「뒷기미 나루」심속득의 서사와 동일하다.

> 박노인이 뒷기미 뒷산 소나무 가지에 목을 매달아 죽은 것은, 속득이가 억울하게 살인죄로 몰려 가혹한 형을 받게 된 사오 일 뒤의 일이었다. (「뒷기미나루」 3: 280)

26) 미셸 푸코, 오생근 역, 앞의 책, 나남, 1994, 340면.
27) 위의 책, 357면.
28) 위의 책, 371면.

낙동강 상류 뒷기미 나룻가에서 삼대 째 살고 있는 박노인과 아들 내외-박춘식과 심속득-가 있다. 이들은 '모래톱 밭뙈기'와 나룻배를 저어가며 근근이 생활하고 있지만, 살림을 조금씩 불리어 가며 평화로운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의 생활이 상승선을 타던 어느날 속득의 남편이 행방불명되고(소설에서는 춘식의 행방불명을 좌우이데올로기와 연결시켜 놓고 있다), 이에 춘식의 몫까지 속득이 담당하게 된다. 남편 대신, 생계를 위해 노를 저으며 하루하루 지내던 어느 날, 심속득의 배를 탄 방앗간 김씨가 심속득을 겁탈하려다가 헛발을 디뎌 강물 속에 빠졌다. 다음날 그녀는 시아버지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경찰에 자수를 했다. 그런데 경찰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바뀌어 버린다. 심속득은 '뒷기미나루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되어 '가혹한' 형을 선고받는다. 이에 시아버지마저 자결을 하고, 심속득은 기약없는 감옥살이를 함으로써, 삼대 째 이어온 뒷기미 나루의 삶은 파국으로 종결된다.

이처럼 고서방이나 심속득의 서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지주/소작, 부/빈, 가해/피해의 대립은 소작인, 가난한 자, 피해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까막소 행으로 갈등이 봉합된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들은 가해/피해의 위치가 전도되는 것을 목도하면서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가해진 처벌을 수용한다. 이러한 양상은 남녀, 세대불문으로 집행되며 근대화시기 개발의 명분 앞에 살던 땅에서 추방되는 서사에도 어김없이 등장한다. 근대화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개발 사업에 한결같이 반대하고 있는 허생원, 송노인은 개발업자와 시비가 붙게 되어 폭행죄로 구류형을 선고 받거나 파출소에 연행된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뛰어 다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게 되자, 결국 방화,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다. 결국 작가는 처벌자 앞에서 속수무책인 약자의 위치를 환기함으로써 처벌자의 전횡을 폭로하고 있다. 소설 안에서 이들의 까막소행에 대해 '무고한'(사하촌), '가혹한'(뒷기미나루) '억울한'

(모래톱이야기) 등의 서술자의 가치평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자의 직접적인 가치평가와 달리, 감옥을 경유한 '순찍 백성'들은 추방, 죽음의 서사로 마감된다.

그런데 「어떤 유서」의 송노인의 파국은 추방으로 완전히 봉합되지 않는 지점이 엿보인다.

> 송씨는 죽기 전에 ××군수와 ××경찰서장에게 호소문 겸 유서를 우송, 송씨가 죽은 이틀 후 당사자들에게 접수되었는데 송씨는 유서에서 환자위원들이 정실로 환지했다고 주장하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잡과 땅, 그리고 죽은 할멈과 한 평생 배를 곯아 가며 마련한 문전옥답을 빼앗기고, 그 대신 겨우 장만한 땅마저 억울하게 잃었으니 어떻게 선영을 대하고 고향땅에 묻히겠는가. 정실환지를 시정해 주지 않으면 죽음으로써 항의하겠으니 내가 죽거든 내 땅을 뺏은 〈오리엔탈 골프장〉이나 농진공사 ×× 사업소에 묻어 달라."고 썼다. (「어떤 유서」 4: 226)

국가-유력자가 결탁된 개발사업에 저항했지만, 결국 개인의 죽음으로 종결되고 마는 사건은 피해자의 패배라는 점에서 까막소를 경유했던 일련의 소설들과 동일한 플롯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때 고서방이나 심속득의 대응과는 다른 지점이 발견된다. 식자도 모르는 민중들이 속수무책으로 까막소의 법에 봉합되었던 것과는 달리, 송노인은 그를 잡아 가둔 파출소에 그 억울함의 목소리를 죽음으로 새겨 놓는다. 비록 개인적인 일탈로 마무리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개입은 국가-유력자의 질서가 지배하는 까막소에 기입되는 균열의 틈으로 의미화될 수 있다.

이러한 균열은 1960-70년대 박정희 정권의 근대화 안에서 '착취와 소외'를 경험하는 '기층민중들의 분노와 부정의식'[29]을 담아내고 있다. 근대화가 전망하는 '먼 앞날'보다 '코앞에 있는 사는 문제'가 더 절박한 민중들은

29) 박대현, 「5.16군사정권과 김정한 소설의 내적 모랄」, 『인문사회과학연구』 18-4, 2017, 88면.

“근대화도 좋지만 소와 사람을 바까치기(바꿈질)할 수야 있나!”(「산거족」) 라고 항변하면서 “이러한 우리들도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이란 걸 모르오?”(「산서동 뒷이야기」) 라고 반문한다. 그러나 이들의 항변은 수렴되지 않고 오히려 추방당한다. 박정희 정권의 국민과 ‘나도 국민이다’[30]를 외치는 추방당한 국민의 서사가 충돌하고 있는 이 지점에서 감옥이 포괄/배제의 경계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까막소의 서사’를 통해 비동일성의 국민을 재현함으로써, 동일성의 폭력을 비판하고 있다.

3. 감옥의 부당 전유: 정치적 주체의 탄생과 저항 공간

요산 소설에서 까막소를 경유하는 서사의 결말은 일정 경향성을 보여준다. 2장에서 밝혔듯이 까막소에 구금됨으로 가족해체, 자살 등의 파국으로 서사가 종결되는 플롯에는 ‘식자도 모르는 백성들이며, 누구도 말을 들어주지 않는 힘없는 백성들이 배치되어 있다. 유력자들의 편에 서 있는 법은 언제나 이들과는 멀었고, 부당한 사법권력이 행사되는 까막소는 이들에게 공포의 공간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까막소에 가게 되는 이유가 당장 먹고 사는 일보다 해방 전후 사상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지식인이 배치되는 플롯은 파국으로 종결되지

30) 여기에서 아감벤의 소문자 인민(people)을 수용할 수 있다. 아감벤은 대문자 인민과 소문자 인민을 구별하면서, ‘총체적이고 일체화된 정치체’와 ’가난하고 배제된 자들의 부분적이자 파편화된 다수’를 각각 위치시킨다. 이러한 구분은, 구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민의 위치성이 이 양극단을 오가며 진동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데 있음을 밝히는 데 있으며, 특히 그는 ‘생명정치적 균열’에 초점을 맞추면서 국민국가 안에서 재현/대의될 수 없게 된 인민의 출현에 주목한다.(물론 이 원리에 대한 개별적인 예외들은 항상 존재한다) 이러한 아이러니 안에서 국민이라는 정체성 밖으로 내쫓긴 국민국가의 타자를 인민으로 재소환하고, 이들의 서사를 통해서 국민의 서사를 균열하고 국가/민족주의를 횡단할 수 있는 ‘다른’ 인민 주체의 탄생을 가늠해 볼 수 있다.(알랭 바디우 외, 『인민이란 무엇인가』, 현실문화, 2014, 27-42면)

않는다. 이때 까막소는 오히려 새로운 의지를 다지는 입사적 공간의 기능이 작동한다. 결말의 양상에 따라 저항의 출발점으로 작동하는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	패배의 공간	저항의 공간	비고
생존형	「그물」「기로」「사하촌」「모래톱이야기」(현재)「평지」「어떤 유서」「뒷기미나루」	「모래톱이야기」(과거)「산서동 뒷이야기」「인간단지」(현재)	「산서동 뒷이야기」는 일제강점기 농민조합과 관련되어 있어, 생존과 이념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인간단지」는 일제강점기 써클운동 등 이념형은 우노인의 과거 행적에 속하나, 현재적 시점에서는 나환자들의 생존문제로 갈등, 경찰서 연행으로 이어짐
이념형	「수라도」「산거족」	「농촌세시기」「수라도」「위치」「과정」「설날」「슬픈 해후」「옥중회갑」「어둠 속에서」「거적대기」「축생도」「인간단지」(과거)	「농촌세시기」는 독립만세 때 사라진 아들 때문에 경찰서 고초를 겪음 「축생도」는 당대 허위적인 의료법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음 「수라도」의 경우 옥사한 밀양양반과 고집을 굽히지 않은 오봉선생을 구분하였음

표 2: 표에 제시된 시간적 배경은 소설 속 사건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위의 도표를 보면, 까막소가 저항의 공간으로 작동하는 작품들은 이념형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념형과 관련하여 까막소를 드나드는 인물들은 「모래톱이야기」의 갈밭새 영감에서 「슬픈 해후」의 성수에 이르기까지 소위 '반골' 지식인 그룹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유형적 특징이 발견된다. 먼저, 「농촌세시기」「수라도」「위치」「옥중회갑」「어둠 속에서」「인간단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식민지 지식인의 까막소행은 항일, 독립운동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과정」, 「설날」「옥중회

갑」「슬픈 해후」에서는 해방정국에서부터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격랑의 시대'를 통과하는 좌파 지식인[31]의 귀착점으로 까막소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모래톱이야기」「산서동 뒷이야기」「인간단지」에서는 근대화시기 개발의 뒤편으로 쫓겨나는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싸우는 노인들[32]의 현재에 과거 까막소 전과기록을[33] 개입시키고 있다.

이때 주목을 요하는 부분은 이 공간이 포획의 정치가 완성되는 자리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슬픈 해후」) 자문하는 지식인의 내면을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사법 권력의 호출 앞에서 '하지만'이라는 접속사를 대동하고, 내가 죄가 없다는 항변은 동일자의 사법 권력의 힘을 기존의 맥락들로부터 부당 전유(misappropriating)[34]하는 가능성을 열어둔다. 그래서 가둠으로, 갇힘으로 당초 공간의 질서가 확립되어 가는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질서 해체의 효과들이 발생한다.

처벌의 영역을 지정석으로 배분받아 왔던 식민지 백성이나 근대화 조국의 백성들은 지속되는 불편부당한 자리의 주어진(배분된) 역할에서 벗어나는 즉 그 공간의 질서를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들을 한다.[35] 이처럼

31) 이에 대해서는 조갑상, 앞의 논문, 11-28면; 김중하, 「인간 김정한론」, 29-38면, 강진호 편, 『김정한』, 새미, 2002 참조.

32) 요산 소설에 등장하는 노인은 순응, 안락, 평안, 풍요에 안주하지 않고 세상과 불화하고 또 대결하는 성격이다.(이경, 「성난 눈과 지역의 정치학」, 『현대소설연구』 49, 2012, 100-105면 참조.

33) 「모래톱이야기」의 갈밭새 영감은 조마이섬에 문둥이 집단 이주를 감행한 관청에 맞서 싸우다가 경찰에 잡혀갔고, 「산서동 뒷이야기」의 박노인은 농민조합 운동을 하다가 '오래도록 경찰에 갇혀 있었고', 「인간단지」의 우노인은 유학생시절부터 '문화서클이'나 '정치적인 그룹'에 관여하면서 경찰 출입을 '사랑방 나들듯' 하였다. 「산거족」의 황거칠 노인은 직접적인 전과 이력은 제시되지 않지만, 불의에 참지 못하는 그의 현재를 과거 3.1운동에 가담했다가 옥사를 당한 할아버지, 독립단 사건으로 왜경에 붙들려가 옥사를 한 아버지와 연결시켜 놓고 있다. 「산서동 뒷이야기」의 박수봉 노인의 일제 강점기 농민조합운동으로 인한 투옥 경력은 현재 마을 청년들을 훈계, 비판하는 준거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34) 주디스 버틀러, 유인석 옮김, 『혐오 발언』, 알랩, 2016, 85면.

감옥에 내재된 질서를 거슬러 균열을 일으키는 것은 당대 감옥의 지배적 표상에 대한 인지와 재현의 간극[36]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위치」는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설이다. 동아일보 신문지국을 운영하던 체험을 모티프로 쓴 자전적 소설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소설의 서두는 "경찰서에서 좀 나오라캅디더"로 시작한다. '나'를 호출한 그곳은 나에게 "이름만 들어도 정나미가 떨어지는 곳"으로 나와 신문지국, 신문 배달을 하는 아이의 동태까지 감시하고 있다. 신문배달을 하다가 번번이 테러를 당하는 배달원 아이를 보며, 나는 "조선 천지가 온통 감옥"이라며 자조한다. 이처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다가 어느날 밀린 신문지대 납부를 독려하러 '기장면'에 갔다가 그 자리에서 나는 '민족의 대변자인 동아일보를 지켜야 함'을 강조했다. 경찰서의 감시는 거기까지 따라왔고, 현장에서 '나'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쇠고랑이 채워졌다. 그런데 소설의 결말은 감옥 문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지점을 시사하고 있다.

> "십분도 채 못 되어서 까막소 철문 앞에 덜커덕 멈추었다. 끼익! 하고 철문이 서서히 열렸다. (…) 나는 곧 제 정신으로 돌아왔다. 감옥이 무섭지 않았다. - 결국 올 데로 온 것이 아닌가? 아무 것도 잘못된 것은 없다. '동아일보와 우리는 당분간 감옥살이를 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으리라….'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내 보금자리가 있는 삼사(三舍)쪽을 향해 천천히 발을 떼어 놓았다. (「위치」 4: 251-252)

까막소가 더 이상 무섭지 않다는 것은 감옥 권력의 유예, 예외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이 예외의 공간은 순종적 주체[37]

35) 해방 전에 발표했던 「그물」, 「사하촌」, 「항진기」, 「기로」는 표면적으로 처벌의 영역을 강화해서 일제의 폭압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그물」의 또쫄이를 제외하면 주재소에 잡혀가는 이들을 '끌면 끌려가는'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감옥이 저항의 기점이 되는 것은 문단 복귀 이후에야 가능하다. 이는 작가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36) 앙리 르페브르, 앞의 책, 90면.

에서 벗어나는 자리가[38] 된다. 이때 감옥은 처벌로 종착되는 공간뿐만 아니라, 정치적 주체[39]가 출현하는 공간으로서 이중성을 배태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성은 주어진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재현의 원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배치의 질서를 거스르는 지점에서 발생하며, 작가는 감금된 신체의 재현을 통해 사법적 권력의 부당함을 전달하고 저항적 주체의 생산을 전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괜히 헛고생 말고, 인제 바른대로 대지 그래? 누가 시켜서 교원연맹을 만들려고 했지?"
>
> 〈사탄〉은 맹수처럼 기다린 송곳니를 드러냈다. 벌써 사흘째 되풀이해 온 질문이었다.
>
> "혼자서 생각한 일이요."
>
> 김인철 교사는 그 사흘째 되는 날도 똑같은 대답을 했다. 사실 그 이상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것이 사실이었으니까..... (「어둠 속에서」 4: 114-115)

> "이젠부턴 이름이 필요 없어. 1147호다, 알겠나? 구치감 36호실!"
>
> 호령을 해대던 간수장의 마지막 호령이 내렸다. (...) 거무하에 그는 구치감 36호실로 차이듯 해서 들어갔다. 꽝! 하는 문 닫기는 소리가 전신의 신경을 얼어붙게 하였다. 감방에서만 맡을 수 있는 독특한 냄새가 물컹 그를 감샀다. (「과정」 3: 44)

---

37) 메셀 푸코, 앞의 책, 205면.

38) 이러한 지점은 작가의 수필에서도 확인된다. '죽음을 각오한 가운데서 나는 그들에 대한 지식이 늘어갔다.(「죽음을 각오하던 날」) '억지로 조작되는 구속의 시련은 그들에게 강한 인간으로서의 재생의 힘을 불어 넣는다 (「시련을 이기고」) 등 구금의 역설에 대한 기록들을 참조.

39) 여기에서 정치적 주체의 개념은 J.랑시에르를 인용한다. 주어진 정체성에 스스로를 동일시하는 선택지에 머물지 않고 그 경계에 위치함으로써 그 선택지를 가능하게 한 나눔의 방식 자체를 문제 삼음으로써 공통 세계 자체를 재편성하는 탈정체화의 문제와 연결된 사유와 실천에서 탄생되는 정치적 주체이다.(자크 랑시에르, 주형일 역, 『미학 안의 불편함』, 인간사랑, 2009, 55면)

자전적 사건을 담고 있는 「어둠 속에서」, 「과정」에서도 유사한 플롯이 발견된다. 「어둠 속에서」는 수감자가 조선인 경찰 '사탄'에게 모진 고문을 당하는 현장을 리얼하게 그려내고 있다. 김인철 교사는 경찰서에 잡혀와 '무릎 꿇고 반성할' 것을 강요받았다. 그러나 "새삼 반성할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어둠 속에서」) "부임 인사를 조선말로 한 것, 동방요배를 형식적인 것이라고 말한 것, 자기가 맡아 있는 2학년 학부형들이 전교를 통해서 제일 많이 조선어 교육을 희망해 왔다는 사실, 그럼에도 '국어 상용'정책에 앞장서 조선어교육을 폐지하겠다는 교장과 맞섰다는 것, 답답한 마음에 '조선인 교원 연맹 같은' 것을 만들어 볼 궁리 끝에 몇몇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낸" 일 뿐이라는 것이다.

1147호 허연은 학술강연회에서의 발언이 문제가 되어 체포되었다. 내용인즉, 문화의 자주성을 이야기하면서 남북언어의 통일을 강조했고 "언어의 통일, 민족의 통일 그것은 피의 요굽니다!" 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되어 현장에서 체포되었는데, 검사는 특히 "피의 요구", "피의 명령"의 의미를 소위 사상불온으로 낙인찍힌 학술대회 주최 측 인사와 연결하여 집요하게 심문한다. 열심히 '자기의 소신'을 밝힌 허연 교수에게 돌아온 것은 "국가보안법 제 몇 조 제 몇 항..."의 보안법 위반이었다.

「어둠 속에서」와 「과정」은 각각 중일전쟁 직후 '황민화 운동'에 박차를 가하던 일제 강점기, 이승만 정권 부정선거 전후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황민화 정책에 저항했던 교사와 남북분단의 상황에서 통일을 외쳤던 교수는 그들이 놓여 있는 국가(제국) 안에서 '법률 위반'이라는 공통항을 지닌다. 그렇다면 이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법률, 금기의 영역에는 각각 신민과 국민의 자리가 배치되어 있다. 범법자로서 신민과 국민의 자리에서 추방당한 이들은 '까막소'에서 교정을 통해 다시 신민/국민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정해진 진술을 끝내 거부함으로, 소신을 굽히지 않음으로 스스로 신민/국민의 자리를 거부한다. 이러한 복귀불가

능을 통해 환기하는 것은, 금기의 영역으로 회수되지 않는 위반의 잉여들이다. 이를 통해 금기의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금기의 폭력은 위반의 욕망을 최대화시킨다. 허연 교수가 감옥 밖으로부터 들려오는 아우성과 총성을 프랑스 시민혁명 직전의 바스티유 감옥에 비유하는 상상력은 위반의 최대치와 만날 수 있는 지점이다.

> 거리의 소란도 더 커지는 것 같았다. 총소리도 여전히 계속되었다. 허연 교수는 팔짱을 낀 채 돌처럼 굳어져 있었다. 그는 18세기 말의 프랑스를 생각하고 있었다. - 프랑스 대혁명....바스띠유 감옥! 전제정치에 의해 습격된 것이, 그들의 가장 큰 국경일- 7월 14일이었겠다....? (「과정」 3: 58)

4. 탈감옥의 공간적 상상력, 취약한 자들의 마당- 미륵당

그렇다면 해방 전후의 감옥사로 재구성되는 요산 소설에서 감옥의 바깥은 어디일까? 반복적으로 감옥을 환기한 작가가 상상하는 감옥에 대한 아토피아는[40] 어디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작가의 즉답은 없다. 그러나 감시의 철조망 사이 흔적으로 남아 있는 장소나, 기존의 질서가(에) 기입되지 못하는 공간에서 탈감옥의 공간적 상상력을 전달한다.

40) 아토피아(atopia)는 장소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Topos'에 부정의 접두어 'a'를 붙여 장소 없는 곳, 알 수 없는 곳과 같은 불확정적인 곳을 칭하는 아토포스 (Atopos)에서 유래된 말이다. 이는 좌표 없는 대양으로 현실을 지워가는 과정에만 생성되는 장소, 영토적 경계에도 위상학(Topology)적 표지에도 없는 움직임으로서의 '탈-장소'를 뜻한다. 또한, 하나의 체제 내에서 어떠한 자리도 차지 않으며,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자신을 탈각시키는 말소된 처소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아토피아(Atopia)'는 유토피아라는 이상적인 사회 그리고 그것으로 향하는 과정의 '장소'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탈-장소'의 맥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기존의 지배공간으로부터 탈주하는 '반공간(counter-space)'의 의미로 사용하되, 장소-수행적 실천의 의미를 주목하였다.(앙리 르페브르, 앞의 책, 543-544면)

① “산등성이에 올라서자, 거기서부터는 수목도 거의 없고, 대신 풀이 무릎 위까지 자라 있었다. 억새는 벌써 자줏빛 꽃순을 내밀었고, 마타리랑 뚜깔도 키 겨룸을 하듯 노랑꼭지, 흰꼭지들을 바람에 흐늘거려댔다. 그러한 키다리들 틈에 끼어 참취, 개쑥부장이, 도라지, 등골나물, 산들깨, 산박하..... 이루 셀 수 없는 조국의 어여쁜 꽃들이 산을 온통 수놓듯 했는가 하면, 찌르르 하는 풀벌레 소리들이 가을을 느끼게 했다. 물컥 꽃향기가 코를 찌른다. 황거칠씨는 문득 조국의 향기를 맡은 듯했다. 숫제 어떤 행복감에 젖었다. (「산거족」 4: 129)

② 저녁 늦게까지 타작일을 하고는 춘식이 내외는 함께 강가로 나갔다. 땀과 먼지로 온통 굴왕신같이 되어 있었다. 행여 철딱서니 없는 사람이 배를 타러 올까 싶어서 일부러 나루터에서 훨씬 떨어진 위쪽으로 찾아갔다. 커다란 느티나무가 서 있는 곳이다. 먼저 물속에 풍덩 뛰어든 춘식이는 이내 속득이를 돌아보았다.

“어서 들오나라.”

그러나 속득이는 내처 기슭에서 어물쩍거렸다. 달빛이 희부여 그런지 옷을 벗을 때도 돌아서서 벗었다. 검푸른 갈수풀을 배경으로 동그스럼한 엉덩머리 짬이 한결 뿌옇게 드러나 보인다.(...) 달이 느티나무 가지 속에 숨어서 그들의 〈제 7 천국〉을 빠끔히 엿보고 있었다. (「뒷기미 나루」 3: 252-253)

③ 손자녀를, 자식을, 남편을, 딸을 그렇게 빼앗긴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아내들은 태고 나루에서 눈물을 짓다 가까운 미륵당을 찾기가 일쑤였다. 절을 세울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거니와, 그야말로 가야부인 자신을 위한 절이요, 불행한 아낙네들을 위한 사랑같은 곳이었다. 무슨 기도를 드려 소원성취를 한다기보다 아들, 딸, 남편, 손자녀들을 억울하게 빼앗긴 그녀들은 거기서 어떤 마음의 위안을 얻곤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특별한 불사가 없는 날에도 할머니들은 곧잘 모여들었다. 대밭각단 양접장의 할머니도 손자가 학병에 끌려가 죽은 뒤부터는 역시 미륵당에 나왔

다. (「수라도」 3: 206)

①은 「산거족」의 '마삿등'의 수돗물을 해결하기 위해 수원(水源)을 찾아 나서기 전,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 올라간 '낙동강 하류가 멀리 내다보이는' 산정의 풍경이다. 누구의 관리도 받지 못하고 버려진 이 땅은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공감각을 일깨우는 장소로 형상화된다. 이 장소는 아직 역사화, 추상화되기 이전의 공간을 환기시키고 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아름다운 산들이 몇몇 사람들에게만 독차지돼야 하는가' 라는 역사인식이 개입되는 순간 분노의 감정을 동반한다.

②는 「뒷기미나루」에서 '찰가난' 속에서도 행복했던 심속득 부부의 정을 그려내고 있다. 낙동강과 갈숲이 이들 내외의 생활과 만나면서 낭만적인 풍경이 된다. 이 풍경은 '우예 살라꼬'로 압축된 낙동강 가의 넋두리가 상상하는 유토피아일는지 모른다. 이 유토피아는 '뒷기미나루 살인사건'으로 영어의 몸이 된 심속득의 현재에 개입하고 있는 심속득의 과거이다. ①, ②는 공통적으로 빈/부, 식민/탈식민, 남/여 등 자본, 민족, 계급, 젠더 등의 문제가 각인된 공간의 권력(Topology) 이전의 공간에 대한 상상을 제시하고 있다.

③은 「수라도」의 '미륵당' 풍경이다. 미륵당은 대대로 유교집안의 며느리 가야부인에 의해 지어진 '쬐깐 절'이다. 이 절에는 한쪽 귀퉁이가 이지러진 돌부처를 모시고 있다. 그런데 마을에서 이 공간은 절이라기보다 '불행한 아낙들을 위한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속사정들을 열어보면, '학병에 끌려가 죽은 대각밭단 영접장 할머니'의 사연, '징용나간 남편의 소식이 끊긴 지 오래된 보르네오댁', '학병을 피해 도망간 가야부인의 막내 아들', 딸처럼 데리고 있는 옥이에게 최후 통첩된 '여자 정신대원' 등이다. 시주나 기복보다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상호 위안을 얻는 곳으로, 기존의 공간적 질서를 거부하고 새로운 공간적 실천을 통해 '차이'를 만들어 내는 일종의 '차이 공간'[41]으로 설

명할 수 있다.

①, ②가 현재에는 없는, 그러나 관여로서 작동하고 있는 유토피아적 성격을 드러낸다면,[42] ③은 현재에 작동하고 있는, 지배공간의 질서와는 다른 공간적 실천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① ② ③의 공통점은 이 공간들이 현재와 불화하고 있는 공간적 질서를 내장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현재 지배적 공간질서의 폭력성을 강력하게 환기한다는 점이다.

특히, 앞의 두 공간은 시원으로서의 장소, 고향으로서의 토포필리아(TopoPhilia)의 이미지를 전달한다면, 공간 미륵당은 해방 전후의 시간을 관통하고 있는 현재성을 드러낸다. '미륵(彌勒)'의 공간성은 '전 조선의 감옥(「위치」)' 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은유로서 감옥의 바깥, 다른 공간에 대한 상상을 엿볼 수 있다. 다른 공간에 대한 기획은 '공간에 개입하는 능력으로서' 성찰적 의미를 획득한다. 미륵당이 놓여 있는 자리는 일제 말기 전횡적 폭압이 극에 달했을 때- 아수라(阿修羅)의 한복판이다.[43]

> 죽은 이와모도 참봉의 아들 이와모도 경보부같은 위인들이 목에 핏대를 올려가며 그들의 〈제국〉이 단박 이길 듯 떠들어 대던 소위 대동아전쟁이 얼른 끝장이 나기는커녕, 해가 갈수록 무슨 공출이다, 보국대다, 징용이다 해서 온갖 영장들만 내려, 식민지 백성들을 도리어 들볶기만 했다. 그리고 그것은 〈제국〉의 빛나는 승리를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라고들 했다.

41) 차이를 부정하고 삭제하는 균질성의 공간이 추상공간이라면, 이러한 모순을 지양하는 공간을 르페브르는 차이공간으로 설명한다. 이때 차이는 '동질화의 주변에서, 동질화에 대한 저항으로서, 또는 동질화의 외부 요소로서 시작되거나 유지된다.(앙리 르페브르, 앞의 책, 530면)

42) ①의 장면 뒤이은 서술은 이 공간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동반하고 있다, "다음 순간 그는 '왜 이러한 아름다운 산들이 몇몇 사람들에게만 독차지돼야 하는가?" 하는 노여움에 다시 사로잡혔다."라는 서술에서 자연공간에서 역사적 공간으로의 전이를 감지할 수 있다.

43) 소설의 처음과 마지막 "석이 안 왔나"라는 가야부인의 임종 직전의 발언은 식민지 과거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채, 한국전쟁- 분단으로 이어진 현재를 적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수라가 종결되지 않은 현재 장소성을 내포한다.

> 몰강스런 식량 공출을 위시하여 유기 제기의 강제 공출, 송탄유와 조선(造船) 목재 헌납을 위한 각종 부역과 근로 징용은 그래도 좋았다. 조상 때부터 길러 오던 안산 바깥산들의 소나무들까지 마구 찍겨 쓰러진 다음엔 사람 공출이 시작되었다. 〈전력 증강〉이란 이유로 영장 받은 남정들은 탄광과 전장으로, 처녀들은 공장과 위안부로 사정없이 끌려 나갔다. 오봉산 발치 열두 부락의 가난한 집 처녀 총각과 젊은 사내들도 곧잘 이마를 〈히노마루(일본국기)〉에 동여매인 채, 울고불고 하는 가족들의 손에서 떨어져, 태고 나루에서 짐덩이처럼 떼를 지어 짐배에 실렸다(물금까지 나가면 기차 편도 있었지만 차는 위대에서 오는 그러한 사람들로 항상 만원이었다). (「수라도」 3: 204~205)

일제말기 공출이다, 보국대다, 징용에 속절없이 손자녀, 아들, 딸을 빼앗기고, 하소연할 곳 없는 필부들이 모여드는 장소는 기존의 사찰과 다르게 재현되고 있다.[44] 이러한 장소성은 미륵당에 모셔진 '한쪽 귀퉁머리가 이지러진 돌'부처의 형상에서 이미 상징성을 드러낸다. '불교를 배척할 당시의 가혹한 손들에 의해서 절이 불태워지고, 내동댕이쳐진 불상'에서 '내쳐진' 부처와 '버려진' 민중들은 유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곳은 반상이나 시주의 구분이 없이 '오다가다 모여드는' 사람들의 장소이고, 특히 아픈 사연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 위안을 얻어가는 취약성을 공통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아무 데도 들리지 않는' 비체(abjection)들의 하소연이 흘러 넘치는'[45] 이곳은 남/여, 제국/식민, 양반/

44) 「사하촌」, 「옥심이」등 그의 초기 작품들 속에서 사찰이나 승려에 대한 부정적 형상화는 미륵당과는 다른 풍경을 보여준다; '기원정사(祇園精舍)의 유풍(遺風)은 찾을 곳이 없었다'(김정한, 「반골인생」, 『낙동강의 파수꾼』, 한길사, 1985, 38면)

45) 이 개념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한 근원에서 종착점에 이르는 주행'(뤼스 이리가라이, 이은민 옮김, 『하나이지 않은 성』, 동문선, 2000, 285면)을 해체시키는 흐름을 내장한 유동성, 액체성이 점유하는 공간성에 주목했다. 이러한 공간을 구성하는 비체는 일차적으로 몸(상징체계) 밖으로 내몰린 더럽고 비천한 존재이지만, 한편으로 동일성이나 체계와 질서를 교란시키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크리스테바는 상상적 이질성인 동시에 현실의 위협인 비체는

평민, 유교/불교 등등의 이원적 경계를 가로지르고 있다. 불행한 사람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미륵당에는 '하도 억울한 일을 많이 겪은' 가야부인을 필두로 남편을 징용 보낸 '뉴기니아댁' '보르네오댁'[46]들의 생사에 대한 정보공유 역할도 하고, 동병상련의 애환을 보듬는 장이 되기도 하고, '왜놈 망해라'며 '속에 있는 말'을 토로하는 장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미륵당의 시공간성은 제국주의의 무자비한 광폭함이 정점에 달하고 있는 식민지 공간과 유리되어 있지 않으면서 한편으로 다른 공간에 대한 상상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미륵당에 몰려드는 다양한 아낙네들과 접속되면서[47] 가야부인이 성취한 '민족모성'[48]은 수난의 역사, 순결한 누이의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는 지점이 마련된다. 이러한 점에서 가야부인의 서사가 젠더화된 민족서사와 다른 결을 성취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가야부인의 유교집안의 맏며느리, 시아버지로부터 인정받은 '가모장'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는 있다. 그럼에도 이 공간은 '유교의 계율에만 억눌려 사는 멀쩡한 노예의 자리를 뚫고 나갈 구멍'(「수라도」)으로 자리하며, 이 공간의 지속성은 이곳에 모여든 다수의, 복수의 비체들의 상호 넘나듦으로 생성되고 있다. 그러므로 아수라장 안에 있는 미륵당의 소란스런 공존은 요산의 소설에서 식민지 백성들을 가두고, 감시하고, 처벌했던 감옥 바깥의 상호 호혜적 공간으로 위치할 수 있을 것이다.

동일자에게 공포의 대상이 됨을 지적한다.(줄리아 크리스테바, 서민원 옮김, 『공포의 권력』, 동문선, 2001, 25면)

46) 소설에서는 이러한 택호들이 생겨난 배경을 압축으로 제시하고 있다. "남자들이 징용 간 곳을 따라 〈보르네오〉댁이니 〈뉴기니야 댁이니 하는 새로운 택호들이 유행되고 있었던 것이다."(『수라도』, 3: 206)

47) 이러한 점을 주목하면서 논자들은 '여성 공동체', '자매애'로 의미화하고 있다.(이상경, 「한국문학에서 제국주의와 여성-김정한의 작품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7권, 한국여성문학회, 2002, 142-147면; 김주현, 「요산 문학에 나타난 섹슈얼리티」, 『한국문학논총』 55, 2008, 65면)

48) 김정한, 「나의 작품 속의 모성상(母性像)」, 『사람답게 살아라』, 265면.

5. 나가며

죄없는 고서방을 '기어이 끌고 간 주재소'(「사하촌」)에서 한국전쟁기 예비검속을 피해 다니던 '식민지 지식인' 성수가 잡혀 들어갔던 '취조실'(「슬픈 해후」)로 이어지는 서사적 풍경은 요산의 등단에서부터 마지막 소설을 관통하는 공간적 연속성을 발견하는 자리이다. 본 논문에서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까막소'가 김정한의 소설에서 핵심적인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까막소를 매개한 공간정치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저항'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고찰했다. 나아가 까막소를 전면화하면서, 한편으로 '감옥체계'를 벗어나는 바깥에 대한 상상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잠재성을 타진하고자 했다.

먼저, 요산 소설에서 직간접적으로 까막소를주요한 서사공간으로 배치하고 있는 작품에서 까막소에 가게 되는 이유에는 '논(땅)'을 둘러싼 갈등과 이념적 대립으로 유형화되는데, 이때 갈등을 매개하는 인물은 전자의 경우 농민, 민중들이 배치되어 있고, 후자의 경우는 주로 지식인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물」, 「사하촌」, 「항진기」등 요산의 초기 작품들이나 '근대화' 문제를 다룬 「모래톱이야기」 「평지」 「어떤 유서」등의 '까막소' 서사는 결국 '법 앞에 약한' 농민들의 패배로 귀결되면서, 파국으로 종결된다. 이때 까막소는 이들에게 공포의 공간으로 작동하면서 없는 죄도 고백하게 만들면서 동일성의 세계를 구축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반면, 사상의 문제와 연결된 까막소 서사의 주체에 주로 지식인이 배치되어 있으며 파국으로 종결되지 않았다. 이념형과 관련하여 까막소를 드나드는 인물들은 「모래톱이야기」의 갈밭새 영감에서 「슬픈 해후」의 성수에 이르기까지 소위 '반골' 지식인 그룹으로 볼 수 있다. 이때 까막소는 오히려 새로운 의지를 다지는 입사적 공간으로 작동한다. 이때 작용하는 것은 공간 까막소에 대한 인지와 재현의 낙차이며, 이러한 균열 안에서

저항적 주체가 탄생되는 과정을 서사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난과 저항의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는 '까막소'의 전면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를 본고에서는 탈감옥의 공간적 상상력으로 전제하고, 감시의 철조망 사이 흔적으로 남아 있는 장소나, 기존의 질서가(에) 기입되지 못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탐문했다. 특히 「수라도」의 취약한 자들이 모여 소란스러운 미륵당의 공간성을 지배공간의 질서와는 다른 공간적 실천으로 주목하였다.

한편, 작가가 끊임없이 환기하는 지점이 해방 전후 '까막소'의 '연속성'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방이 된 뒤에도, 일제가 물러가면서 무슨 사무 인계를 어떻게 했는지, 계속 관헌의 감시를 받는 처지에 놓였다"[49]는 작가의 술회에서 해방 전후의 달라진 상황 속에서도 연속적 동일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바뀌지 않는 감시/피감시 주체/대상의 지속성이다. 반일, 일제에 대한 저항 탓으로 감시대상이 되었던 인물이 해방이 된 이후에도 '감시를 받는 처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아이러닉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 아이러닉한 대목을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를 작가의 역사인식 한 대목에서 엿볼 수 있다.

> 더구나 어제까지 지나치게 친일(親日)을 해 오고 우리를 못살게 괴롭히던 사람들이 별안간 애국자연하고 설치는가 하면 심지어 독립투사, 반일 사상자들을 족치던 일부 일제(日帝) 고등계 형사들이 일약 경찰 요직에 앉는 것을 보았을 때는 다시 글(소설)을 쓸 용기가 나지 않았다.[50]

작가가 통탄했던 지점은 이처럼 '일제 고등계 형사가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경찰로 둔갑한 일'로 압축되는 현실이다. 해방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이 오히려 "해방의 덕을 보지 못하는"(「수라도」) 반면, 일제 때 고

49) 김정한, 「이윽고 나와 함께 다 늙은 아내에게」, 『낙동강의 파수꾼』, 한길사, 1985, 223면.
50) 김정한, 「남 못주는 버릇」, 『사람답게 살아가라』, 동보서적, 1985, 272면.

등계 경보부로 있었던 사람은 해방 이후 경찰간부가 되고 다시 국회의원이 되는"(「수라도」) 역사가 재현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피 값도 못찾은 해방'(「독메」), 탁주잔이나 얻어 마신 해방(「실조」), '거꾸로 되어가는 해방(「지옥변」), 신기한 해방(「수라도」)의 표현들을 진정한 해방이 오지 않은 현실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사유이다. 이때 해방 전후 식민통치의 감시와 규율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공간 주재소/까막소/경찰서/감옥의 연속은 식민의 치안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은유적 장치로 볼 수 있다.[51] 이는 위로부터의 해방과 아래로부터 해방의 간극을 증명하는 자리이며, '현재에도 작용하는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52]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요산의 까막소 서사는 종결형으로 마감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형으로 현재의 시공간에 개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1) 이러한 관점은 일제말기 강제징용, 위안부를 호출하고 있는 지점을 탈식민과 동아시아적 전망으로 연결시키는 연구와 연결된다. (하상일, 「식민지의 연속성 비판과 동아시아적 시각의 확장」, 『한민족문화연구』 61, 2018, 35-56면)

52) 황국명, 「요산문학 연구의 윤리적 전회와 그 비판」, 『한국문학논총』 51집, 2009, 299면.

| 참고문헌 |

1. 자료

김정한, 『낙동강의 파수꾼』, 한길사, 1985.

김정한, 『사람답게 살아가라』, 동보서적, 1985.

조갑상, 황국명, 이순욱 엮음, 김정한 전집(1-5), 작가마을, 2008.

2. 연구논저

강진호, 「근대화의 부정성과 본원적 인간」, 강진호 편, 『김정한』, 새미, 2002, 132-141면.

구모룡, 「21세기에 던지는 김정한 문학의 의미」, 『창작과비평』 36-3, 2008, 360-375면.

김경연, 「김정한 미발표 장편 자전소설 연구」, 『한국문학논총』 77, 2017, 263-308면.

김병걸, 「김정한 문학의 리얼리즘」, 강진호 편, 『김정한』, 새미, 2002, 59-88면.

김종철, 「저항과 인간해방의 리얼리즘-김정한론」, 강진호 편, 『김정한』, 새미, 2002, 89-128면.

김주현, 「요산 문학에 나타난 섹슈얼리티」, 『한국문학논총』 55, 2008, 47-74면.

김중하, 「인간 김정한론」, 강진호 편, 『김정한』, 새미, 2002, 29-38면.

박대현, 「5.16군사정권과 김정한 소설의 내적 모랄」, 『인문사회과학연구』 18-4, 2017, 83-105면.

오현석, 『김정한 소설의 공간정치학』, 부산대 박사논문, 2017.

이경, 「성난 눈과 지역의 정치학」, 『현대소설연구』 49, 2012, 91-118면.

이상경, 「한국문학에서 제국주의와 여성-김정한의 작품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7, 2002, 135-162면.

조갑상, 「시대의 질곡과 한 인간의 명징함」, 강진호 편, 『김정한』, 새미, 2002, 11-28면.

최강민, 「요산 김정한 소설에 나타난 타자성」, 『한국문학논총』 50, 2008, 75-105면.

최미진, 「김정한 소설의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문학논총』 54, 2010, 243-272면.

하상일, 「요산 소설의 지역성과 동아시아적 시각」, 『영주어문』 34, 2016, 271-294면.

하상일, 「식민지의 연속성 비판과 동아시아적 시각의 확장」, 『한민족문화연구』 61, 2018, 35-64면.

황국명, 「요산문학 연구의 윤리적 전회와 그 비판」, 『한국문학논총』 51, 한국문학회, 2009, 289-318면.

뤼스 이리가라이, 이은민 옮김, 『하나이지 않은 성』, 동문선, 2000.

미셸 푸코, 오생근 옮김, 『감시와 처벌』, 나남, 1994.
알랭 바디우 외, 『인민이란 무엇인가』, 현실문화, 2014.
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옮김,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자크 랑시에르, 주형일 옮김, 『미학 안의 불편함』, 인간사랑, 2009.
자크 랑시에르, 진태원 옮김, 『불화』, 길, 2015.
주디스 버틀러, 유인석 옮김, 『혐오 발언』, 알랩, 2016.
줄리아 크리스테바, 서민원 옮김, 『공포의 권력』, 동문선, 2001.

<Abstract>

A Study on Spatial Politics of Kim Jung-han's Novels
−From ‘kamagso(prison)’ To Maitreya

Mun, Jae-Won

In this paper, I noticed that the recurring prison is a key space in Kim's novels. Therefore, I examined how the spatial politics that mediated the prison is connected with the resistance that the author intends to say. And while the author generalized the prison, he considered how he imagined the outside of the prison system. The prison is a space in the Kim Jong-han novel that ends the narrative with catastrophe, but also suggests the possibility of becoming a starting point for a new narrative. At this time, the new starting point is the point of departure from the reign of the reign of the prison and the ideology of the reign, and the birth of a new space-subject.

The narratives of the peasants and the peopl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modernization period ended in catastrophe as mediated with prisons. At this time, the prison is functioning as a space of fear for them to build a world of identity. On the other hand, the narratives of intellectuals tended to be born as resistance subjects while being mediated with prisons.

Through the image of prison, which contains the duality of suffering and resistance, it is assumed that what the author ultimately wants to say is the imagination of de-prison. So, in this paper, I searched around the

unrecoverable space in the prison system. Particularly in Sulado, the space of the Maitreya, which the vulnerable people make together, was noted as another spatial practice of the order of the ruling space.

Key words: Kim Jung-han, kamagso(prison), Maitreya, Topopovia, Political subject, resistance, Spatial practice

투 고 일 : 2019년 11월 16일 심 사 일 : 2019년 11월 18일-12월 6일
게재확정일 : 2019년 12월 11일 수정마감일 : 2019년 12월 26일